와스디, 에스더, 세레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과 복잡한 유산

유연희 | 감신대 외래교수

옛날 옛적에 어떤 왕이 세자비 후보를 찾았다. 관례에 따르자면 고관대작의 딸 중에서 세자비 후보들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문 배경을 따지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 수많은 소녀들이 지원을 했다. 예선과 준결승을 거쳐 수십 명이 최종 결선에 올라왔다. 최종 결선에서는 왕이 직접 문제를 냈다. 궁궐의 넓은 마당에서 결선이 벌어졌다. 왕은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을 가리키며 기와지붕 위의 골이 몇 개나 되느냐고 물었다. 후보자들은 지붕 끝을 향해 고개를 들고 올려보며 걸으면서 기와 골이 몇 개나 되는지 세기에 바빴다. 그 때 후보 중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지 않고 아래를 보고 걸었다. 기와 골 아래로 빗물이 땅에 떨어져 선명하게 파인 작은 구멍들을 걸으면서 세고 있었던 것이다. 평범한 가문 출신인 이 소녀가 왕세자비로 간택이 되었다.

www.kci.go.kr

1. 들어가는 말

앞서 인용한 이야기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우리의 옛날이야기이다. 후보자들이 지붕의 기와 골을 세려고 올려다볼 때는 밝은 하늘을 배경으로 정확하게 세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아한 자세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 간택은 미인대회라기보다는 지혜대회에 가깝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소녀들에게 희망을 준다. 평민에게 기회를 주는 왕이 등장하고, 아버지의 명을 존중하는 세자를 전제로 한다. 평민 소녀들은 서로 자신의 딸을 세자비로 세우려는 중신들의 정치 음모에 휘말리거나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는 에스더서에서 와스디가 겪었던 것처럼 자격 시비로 폐위되어야 하는 이전 세자비 따위는 없다. 그러나 세자비 후보는 출신 가문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 곧 지혜와 기품은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역량은 에스더서의 등장인물 묘사에서도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이 글은 에스더서에서 화자가 제시하는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화자가 여성 등장인물인 와스디와 에스더와 세레스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다룬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평범한 독자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이 책은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 여성의 리더십을 멋있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여성 리더십에 대해 복잡한 유산을 남겨준다. 이 글은 그 복잡한 유산이 무엇인지 한국 교회여성의 리더십과 연관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화자가 제한되고 왜곡된 여성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독자를 호도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다룬 것을 소개하면서 독자가 에스더서 속의 여성 등장인물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나 한 명의 인물에 집중하여 칭송하는 것이나 탓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화자의 관점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살펴볼 것은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이 화자의

www.kci.go.kr

관점을 그대로 설교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화자의 관점과 한국의 주석과 설교들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한국 설교자들의 이해와 교회 여성의 실제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민감한 독자들은 에스더서의 여성 등장인물들이나 한국 교회의 에스더 같은 여성들과 와스디같은 여성들이 둘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세레스 같은 교회 여성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말하는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기표현을 꿈꾸기를 바랄 것이다.

2.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

에스더서에는 세 명의 주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와스디와 에스더와 세레스이다. 와스디는 페르시아의 왕비이고, 잔치에서 아하수에로왕과 신하들 앞에 나와 미모를 보여주라는 요청을 받는다. 와스디는 왕명을 어기고 잔치에 나오지 않는다. 그 결과 폐위를 겪는다. 유대인인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개의 계획에 따라 간택과 미용 과정을 거쳐서 새 왕비가 된다. 에스더는 모르드개를 비롯한 동족 유대인이 위험에 빠지자 용기와 지혜로 그들을 구한다. 세레스는 궁정의 고위 관리인 하만의 아내이다.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당사자이다. 세레스는 남편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이 세 여성 중에서 에스더와 와스디를 가장 많이 연구했고 세레스에게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자들은 이들 인물의 리더십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다. 특히 와스디와 에스더가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냉소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음은 다양한 평가를 요약한 것이다.

www.kci.go.kr

1) 와스디의 리더십

일찍부터 여성 독자들은 와스디가 인상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주목하였다. 1800년대 말의 *The Woman's Bible*(여성의 성서)은 와스디가 두드러진 여성 인물이고 자존감과 용기로 남편의 의지와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고 쓴다.[1] 그래서 와스디는 '자기중심적인 여성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최초의 여성이다.[2] 이 책의 저자가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묘사는 리더십과 연관이 있다.

와스디는 왜 왕명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말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옹호할만한 대사가 있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와스디는 행동으로 크게 말한다.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화자가 침묵시킨 것은 독자로 하여금 거칠게 상상하게 만들었다. 특히 와스디가 아름다워서 너무 교만했다는 상상이 많다.[3] 와스디가 왕명에 거부한 이유는 와스디의 리더십 때문일 수 있다. 와스디는 여자들과 따로 자신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 와스디는 자신이 대표해야 할 대상이 있는 국가 지도자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와스디는 자신을 지도자로 바라보는 여성들에게 나쁜 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왕명을 거절했을지도 모른다. 남성 관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여자들'(1:17)과 '모든 귀부인들'(1:18)이 와스디의 선례를 따라서 남편을 업신여길까봐 전전긍긍한다. 이 말을 거꾸로 유추해보면 왕비인 와스디가 왕국의 여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리더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와스디가 왕명을 거절한 것은 남편의 자랑거리나 술에 취한 남자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개인의 바람 이상일 수 있다.

---

1) Elizabeth Cady Stanton and Lucinda B. Chandler, "Comments on the Book of Esther," in E. C. Stanton(ed), *The Woman's Bible* (New York: European Publishing Company, 1898; repr. Seattle: Coalition Task Force on Women and Religion, 1974), 86–87.

2) Stanton, *The Woman's Bible*, 88.

3) https://sisa-news.com/read.php3?no=18778&read_temp=20070419&section=24; http://www.brethrenhouse.or.kr/jamee/ja_01.htm.

www.kci.go.kr

현대의 많은 페미니스트 독자들은 에스더보다 와스디에게 더 점수를 준다. 이경숙 교수는 "와스디와 에스델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신학"이라는 글을 통해 페미니스트 독자들의 딜레마를 잘 표현하였는데, 이 독자들은 와스디가 더 모범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4]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고 결정하고 성숙하고 당당한 여성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독자들의 눈에 에스더는 가부장제 안에서 전형적으로 행동한 여성으로 나온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와스디는 왕명에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스디는 단호한 선택을 하고 왕명에 거부했고 이는 에스더보다 더 큰 용기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와스디의 경우를 통해 여성 리더십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메리 젠들러(Mary Gendler)는 전체 에스더서의 메시지가 에스더의 경우보다 와스디의 경우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본다. 그 메시지란 "대담하고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순종하지 않는 여자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5] 젠들러는 에스더서가 여자들은 권력, 야망, 미움, 독립, 직면(confrontation), 거절, 공격성 등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고 덧붙인다. 여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공공연히 표현하면 그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와스디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와스디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것은 와스디와 에스더를 더욱 대립시킬 위험이 있다. 성서 화자는 이 두 여자를 서로 대립시키고 독자가 둘 중 한

---

4) 이경숙, 「구약성서의 여성들」 (대한기독교서회, 1998), 203–16. 알리스 라페이 저,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장춘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8), 322–29. 원제는 Alice Laffey,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Mary Gendler, "The Restoration of Vashti," E. Koltun(ed), *The Jewish Woman: New Perspectiv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6), 246.

5) Gendler, "The Restoration of Vashti," 245.

www.kci.go.kr

편을 들게 만든다. 이럴 경우 여성 독자들조차 서로 분리되기 십상이다. 와스디를 에스더보다 더 나은 리더라고 보는 것 또한 같은 위험을 떠안는다.

2) 에스더의 리더십

성서 해석의 역사를 돌아보면 에스더만큼 칭송을 많이 받은 성서 여성도 드물 것이다. 에스더에게 붙는 일반적인 형용사는 '순종적인,' '안팎으로 아름다운,' '애국적인,' '신실한,' '용기 있는' 등이다. 에스더는 의심할 여지없이 파워풀한 리더라고 오랫동안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에스더는 여전히 팬도 있지만 안티들도 생겼다. 먼저 에스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이러하다. 에스더는 그다지 지성적이지 않은 미인이고 두뇌는 모르드개가 공급해준다.[6] 에스더는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한다. 에스더는 덕이 부족하거나 비도덕적이고 신실하지 않다. 에스더는 또한 '기술이나 인품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얻고, '여성적인 매력을 써서' 승리한다.[7] 에스더는 남자들을 통해서 권력에 이르고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닮아서는 안되는 인물이다.[8] 이런 관점에 의하면 에스더는 전혀 리더가 아니며, 기껏해야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는 욕심쟁이일 뿐이다.

둘째 그룹의 학자들은 에스더가 처음에는 별로 리더십이 없고 수동적

---

6) Carey A. Moore, *Esther*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1), lii; Gendler, "The Restoration of Vashti," 246; C. A. Moore,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220; S. Zeitlin, "The Books of Esther and Judith: A Parallel," M. S. Enslin(ed), *The Book of Judith* (Leiden: Brill, 1972), 13.

7) Lewis Bayles Pat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sth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 Son, 1908), 96; Bernhard W. Anderson, "Introduction and Exegesis to Esther," G. A. Buttrick, et al.(ed), *The Interpreter's Bible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831, 862; Gendler, "The Restoration of Vashti," 243.

8) Gendler, "The Restoration of Vashti," 242.

www.kci.go.kr

이었는데 나중에 위기에 직면하자 성숙하게 되었다고 관찰한다.[9]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하려고 음모를 꾸미자 에스더는 처음에는 나서서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위협하고 강요하다시피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일단 선택하고 나서는 왕궁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획과 전략을 짠다. 이 견해에 의하면 에스더가 성을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부장제 하에서 그리고 어려운 포로의 삶 속에서 여성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고 한다. 심지어 에스더를 '이상적인 유대 여자'가 취할 행동의 범례를 보여준다고 본다.[10] 그러나 이 생각은 문제가 있다. 여성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매력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무대 뒤에서 정치 공작을 펴는 것이 좋다는 비도덕적인 방식을 진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관점에 의하면 에스더는 많은 긍정적인 리더십 자질을 보인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전체 구약성서 중 가장 많이 등장한다(총 24번 중 20번). 이런 책에서 에스더의 금식은 명백하게 신앙과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또한 와스디가 겪은 일을 알고 있을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타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어느 좋은 리더도 희생, 용기, 지혜라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11] 에스더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음식이나 성찬이 아니라 왕에 대해 지적이

---

9) 브루스 존스(Bruce W. Jones)는 "그녀(에스더)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갑자기 성숙해진다."고 본다. "Two Misconceptions about the Book of Esther," C. A. Moore(ed), *Studies in the Book of Esther* (KTAV Publishing, 1982), 442.

10) Naomi Harris Rosenblatt, "Esther and Samson," *Bible Review* 15:1 (1999), 22; Sidnie Ann White, "Esther: A Feminine Model for Jewish Diaspora" P. L. Day(ed), *Gen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61–77. Cf. http://blog.joins.com/yiyoyong/

11) Stanton and Chandler, "Comments on the Book of Esther," 84–92; A. C. Lichtenberger, "Exposition to Esther," G. A. Buttrick et al.(ed), *The Interpreter's Bible III* (Nashville: Abingdon Pres, 1974), 841–47; 탈몬은 에스더가 궁중 관리처럼 지혜의 특질을 구현하고 있으며 모르드개보다 뛰어나다고 본다. S. Talmon, "'Wisdom' in the Book of Esther," *Vetus Testamentum* 13 (1963), 437–53.

www.kci.go.kr

고 정치적으로 정확히 평가한 것이었다.[12]

세 번째 그룹의 학자들은 에스더의 리더십 속에서 긍정적인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본다.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8:1)을 상으로 주자 에스더는 곧바로 그것을 아무 설명이나 망설임 없이 모르드개에게 준다.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왕의 좋은 옷을 입고서 수사성을 돌며 행차한다(6:11; 8:15).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스더는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에스더는 책의 맨 뒤에서 부림절을 제정하는 맥락에서만 잠깐 언급될 뿐 목소리도 없고 다시 등장하지도 않는다. 에스더서는 모르드개를 칭찬하는 것으로 마친다. 버를 러너(Berel Dov Lerner)가 풍자적으로 한탄하듯이 에스더에게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모르드개는 정치적인 성공이라는 영광을 입는다. 에스더는 백성의 위험스런 생존을 위해 강간을 당해야 했던 희생자이다."[13] 결국 페미니스트 독자들은 에스더가 성공한 방식을 마뜩찮게 생각한다. 에스더는 재주가 있는 지도자이지만 그 재주가 남자들에게 이용되었고 남성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갇혔다는 것이다. 에스더는 남자들의 변덕과 욕망에 협조했다. 에스더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성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했다. 여성이 진정 힘을 사용하는 것은 여성의 규칙에 따라서 남성을 움직이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14] 그래서 페미니스트 독자들에게는 와스디의 행동양식이 더 매력적이다. 에스더의 결정과 행동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성평등한 환경이 아니었던 페르시아 사회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15] 에스더는 실용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고,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자신이 원하

12) Leila Leah Bronner, "Reclaiming Esther: From Sex Object to Sage," *Jewish Bible Quarterly* 26:1 (1998), 9.
13) Berel Dov Lerner, "No Happy Ending for Esther," *Jewish Bible Quarterly* 29:1 (2001), 11.
14) Linda Day, *Esther*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101.
15) Day, *Esther*, 102.

www.kci.go.kr

는 바를 얻었다.

에스더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든지 에스더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와스디와 세레스가 덜 중요하다고 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와스디와 에스더를 따로 다루고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화자가 여성 리더십을 다룬 방식을 그저 반복하고 강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3) 세레스의 리더십

세레스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여성 중 이름이 주어진 마지막 인물이다. 주요 남성 등장인물이 아하수에로왕, 모르드개, 하만이라면, 주요 여성등장인물은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이다. 학자들은 지금까지 세레스를 별로 조명하지 않았다. 대체로 학자들은 악역을 맡은 하만의 시각에서 에스더서를 연구하지 않았고,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의 시각에서는 더욱이 연구하지 않았다.

하만과 세레스의 부부 관계는 다정한 듯하다. 왕과 와스디 부부는 기싸움으로 갈라섰고, 왕과 에스더 부부는 겉으로는 다정한 듯하나 에스더가 잔치를 기획하고 조심스레 왕을 만나는 모습에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세레스는 불과 두 번에 걸쳐 짧게 등장하지만(5:14; 6:13) 인상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세레스는 매 번 하만에게 조언을 주고, 하만은 따른다. 세레스는 남편 하만이 정치와 인간관계 때문에 심란할 때 상의하는 대상이요, 하만의 정치적인 두뇌이다. 와스디는 대사가 한 마디도 주어지지 않았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강압을 받고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또 왕은 한 번도 이들 여성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세레스는 매번 하만이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다. 하만은 밖의 정치판에서 행동하지만 세레스가 하만을 집에서 가르쳐 내보낸다.

세레스는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집단적인 조언을 준다. 첫 번째는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기분이 좋아 돌아오던 날이

www.kci.go.kr

었다. 그런데 하만은 대궐 문에서 만난 모르드개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다. 모르드개가 저번처럼(3:2) 또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아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하만은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모르드개에게 그 자리에서 야단치거나 벌을 주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내와 벗들의 지혜를 구한다. 세레스와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5:14)라고 조언한다.[16] 하만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어 당장 나무를 준비해둔다.

세레스가 두 번째로 하만에게 조언을 줄 때는 '현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다(6:13). 하만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지만, 친구들 중 '현자들'과 세레스만이 함께 말을 해준다. 세레스와 현자들은 하만의 불운을 예고하고 같은 생각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와 같이 화자가 세레스를 묘사할 때 현자인양 묘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표현하는 여성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세레스는 이름이 밝혀져 있고 친구들이나 현자들은 익명이므로 세레스가 더 두드러지고 독자들은 마치 세레스가 혼자 말을 하는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레스의 리더십은 조각나 있다. 화자는 세레스의 입에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말을 담아두었을 뿐이다.

첫 번째로 세레스가 남편을 지지하여 조언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

16) 오십 규빗은 20미터에 해당하고, 6, 7층의 건물 높이다. 교수대를 높이 만드는 것이 대중이 잘 볼 수 있도록 시체를 높이 매달아 수치와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20미터는 과장이다. 솔로몬의 성전도 불과 30규빗이었다. 참조. Berlin, *Esther*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55.

www.kci.go.kr

편과 자신의 몰락을 준비한 것이다. 준비한 장대에는 모르드개가 아닌 하만이 달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 아들도 나무에 달렸기 때문이다(9:13, 14, 25). 세레스의 두뇌는 이 문학적 아이러니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화자에 의해 이용되었다. 세레스는 하만의 패배를 예고하며 히브리어 동사 나팔(넘어지다, 떨어지다, 몰락하다)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철저한 몰락을 묘사했다. 문자적인 번역은, "당신의 몰락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신은 몰락할 것이요. 당신은 실로 몰락할 것이요"(6:13)이다. 이 말을 객관적인 상황 묘사로 보기에는 5장 14절에 나온 세레스와 일관성이 없다. 그 세레스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대처할 복안을 내놓았을 법하다. 남편의 몰락을 예고하는 세레스는 적인 유대인의 편을 지나치게 들며 불운을 예언하는 재수 없는 마누라에, 자조적인 독백을 하는 것 같다. 실제로 하만은 대꾸할 틈도 없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데리러 와서 자신의 몰락이 준비된 잔치로 가야했다(6:14). 또한 세레스는 남편이 조언을 구할 때만 말을 하니까 수동적으로 묘사된다. 간단히 말해서 화자는 세레스의 리더십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느라 세레스에게 부당한 역할을 맡게 한다. 곧 세레스 부부는 사이가 좋은데 아내는 남편과 자신의 유익에 반하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세레스에 대한 인물 묘사는 가장 일관성 없고, 세레스는 남편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배신하는 분열증을 보인다. 그런데 세레스는 에스더처럼 남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 세레스는 에스더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세레스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는 에스더를 위해 제거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여자이다. 아니, 유대인의 승리를 위해서는 에스더의 여성 리더십이나 다른 여성들의 리더십도 일관성이 없고 조각나도 되는 것이다.

www.kci.go.kr

3. 한국 설교자들과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

20세기 초에 한국의 초기 교회에서 여러 여성 리더들은 크리스천 이름으로 지을 때 '에스더'라는 이름을 택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독립운동과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구하려고 한 일을 연관을 시켰기 때문일 것이다.[17] 오늘날까지도 보수적인 기독 여성들의 기도 모임이나 부흥회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 모두는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에스더는 룻과 더불어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성서의 책 제목에 들어갔다. 성서의 많은 두드러진 여성 인물 중에 에스더는 흠이 없고 이상적인 여성 지도자로 여겨진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이 한국 기독교에서 잘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특히 목회자)이 에스더에 대해 갖는 이해와 한국교회에서의 여성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체교회, 특히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을 대표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이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교회 여성의 리더십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악녀 와스디

대형교회의 목회자, 전국 교회연합회 회장, 설교자를 위한 주석서의 저자들이 와스디를 보는 견해를 몇 가지 싣자면 다음과 같다.[18] 일반적으로 이들은 와스디에게 가차 없는 평가를 내린다. 와스디는 남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남자들의 성공을 막는 악녀의 구현이다.

대구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는 저서 「민족을 구한 여성 에스더」에서

17) 이경숙 교수는 1994년에 열린 한일여성신학 포럼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에서는 에스더서에 관해 설교도 강독도 별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피해국과 가해국이 에스더서를 대하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구약성서의 여성들」 (대한기독교서회, 1998), 203

18) 한국에는 구약성서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남성 학자들이 많고 진보적인 남성 목회자들도 많은데 성 인지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적다.

www.kci.go.kr

와스디를 교만하다고 평가한다.[19]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무시했고 그를 사람들 눈에 우습게 만들었다. "그녀의 교만 때문에 왕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 여기서의 교훈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극에 조연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와스디가 왕을 '사람들 눈에 우습게 만들었다'는 말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다른 설교자들도 종종 쓰는 말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한 박종순 목사는 욥기 42:10-17을 본문으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와스디를 욥의 아내와 다윗의 아내 미갈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20] 욥의 아내는 "함께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욥이 고통으로 밤을 지샐 때도, 재를 무릅쓰고 옷을 찢을 때도, 친구들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을 때도 그의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곁에 있는 먼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는 흥미롭게도 욥의 아내가 남편이 어려울 때 함께 있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데 성서 본문은 이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갈은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와스디도 자신의 미모를 믿고 교만하여서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 이 설교는 미갈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죄, 곧 남편을 '무시'한 죄를 씌운다. 와스디는 미갈과 욥의 아내와 나란히 대표 악녀로 등극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왕이 이기적으로 권위를 부리고 술 취하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기도 한다.[21] 또 이런 식으로 해설하기도 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평화와 신앙을 보존할 수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가정이 파괴된다. … 와스디의 가정은 왕이 이기적인 권위를 부렸기 때문에 파괴되었

19) 김서택, 「민족을 구한 에스더」 (Seoul: Christian Literature Press, 2006). 「그 말씀」 (두란노서원, 2007:2)에서 인용.

20) www.gnbtv/bard/boarddetail.html

21) 제자원 편, 「그랜드 종합주석 7」 (성서아카데미, 1999), 1034;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3」 (기독지혜사, 1997), 475.

www.kci.go.kr

다."[22] 이 주석은 와스디를 탓하지 않고 대신에 왕의 부족한 면을 지적하기 때문에 언뜻 중립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돕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예문은 역시 여성을 남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제시한다. 설교 안에 이런 예화가 나온다.

> "어느 유명한 첼리스트의 아내는 남편의 연주가 있을 때마다 함께 동행하였다. 그녀는 남편의 연주에서 피아노를 반주하였던 것이다. 연주가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연주가 시작하기 전에 분주히 준비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삐게 되었다. 그러나 예정대로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삔 팔의 통증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남편의 연주가 계속되도록 아픔을 참고 반주하였다. 연주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관중의 환호 속에 무대 위로 오자마자 그녀는 통증으로 졸도하였다. 깨어난 아내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남편의 걱정 섞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연주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연주를 훌륭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아내의 도움이었음을 깨닫고 새롭게 감격하였다. 남편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참아낸 아내가 있는 반면에, 왕후 와스디는 규례에 어긋났다 하여 남편의 명을 거역하므로 왕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남편 아하수에로 왕을 곤경에 빠뜨렸다. 당신은 둘 중 어떠한 자인가?"[23]

또 다른 주석은 생략의 죄를 범한다. 이 주석은 에스더서의 화자가 와스디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특별히 서술하지 않는'다고 관찰한다. 그래서 와스디를 잠시 언급하는 이유는 와스디의 주변 인물들, 곧 왕과 신하들의 움직임을 전달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화자의 의도가 와스디의 거절을 통해 생기는 상황 전개와 와스디의 폐위 및 하나님의 구원 사건

22) 윗글, 1034.
23) 윗글, 1035.

www.kci.go.kr

에 더 초점을 두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4] 주석 뒤에 붙은 설교문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난히 악인이었다는 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무난한 왕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옹호한다.[25]

많은 설교자들이 종종 남편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흥미롭다. 와스디를 주로 아내로 보는 반면, 공식 지위를 가진 왕비나 리더로는 여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취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여 공적으로 체면을 구긴 것처럼 읽는다. 그래서 와스디에게 부정적인 형용사를 많이 갖다 붙인다. 문제는 이 설교자들이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화자의 관점을 그대로 물려받고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이 관점을 강화시킨다. 와스디에 대한 이들의 해석은 한국의 일반적인 기독교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

교회 여성이 참여한 리더십 세미나에서 "와스디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라고 물은 적이 있다. 여러 대답 중 몇 명의 대답이 놀라웠다. 와스디를 '악녀'라고 부른 것이다. 이것을 어디서 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목회자나 평신도가 와스디에 대해 해석하여 인터넷에 띄운 자료가 많다. 절대 다수가 와스디를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오직 소수의 남성 목회자만이 왕의 요구가 성희롱이거나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2) 착한 에스더

한국의 그 어느 주석가나 목회자도 주석과 설교와 인터넷 공간에서 에스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에스더를 찬양하고 그를 통해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코멘트가 가장 일반적이고, 부지기수로 많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와스디가 폐위되고 곧바로 에스

24)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 3」 (기독지혜사, 1997), 475.
25) 윗글, 480.

www.kci.go.kr

더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믿는다. "에스더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라'(4:16)라고 하는 말 속에 드러나고, 이는 이삭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믿음과도 같다."고 한다.[26] 또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한다. "에스더는 그 화려한 황후의 생활을 포기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사흘 동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헌신함으로 민족을 건지고 크고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와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나는 가노라'하는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었습니다."[27] 또 다른 목사는 에스더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에스더는 신앙을 가졌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고, 자기희생을 각오했다고 한다. 이 목사는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으며 순종적인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28]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에스더를 해석할 때 '순진한 독자'(gullible reader)이다. 그들은 에스더를 향해 온갖 긍정적인 형용사를 아끼지 않는다. 에스더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고, 신실하고, 희생적이고, 기도한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곧 남편들, 남자들,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특성을 발휘한다. 그런데 에스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지배적인 교회에서는 에스더와 다르게 행동하는 여성 리더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에스더에 대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칭송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한 교회 여성은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여성이 결정기구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

26) 2006년 1월 8일 설교. http://blog.naver.com/goldnature
27) http://sdskc.co.kr/zbxe/board_9/2516/page/15
28) http://mission.bz/976

www.kci.go.kr

학자들의 논의와 설교자들 위한 주석서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들릴 것이다. 물론 학문 훈련과 전문성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두 그룹의 해석은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곧 에스더들과 와스디들로 여성이 분열된다는 것이다. 설교와 주석들이 에스더를 극도로 칭송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와스디를 에스더와 날카롭게 대조하여 보게 한다. 두 여성을 분리해서 다루고 대조와 비교를 평가하고, 나아가 세레스를 침묵시키는 것은 여성 리더십에 관한 화자의 관점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과 복잡한 유산

에스더서의 화자는 여성 리더십을 이야기 구성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묘사하였다. 화자의 묘사는 세 명의 여성 등장인물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한다. 화자의 이야기 구성을 위해서 세 여성의 리더십이 희생되고 조각이 났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성 리더십에 관한 왜곡된 관점이다. 화자가 주인공 에스더를 통해서 여성의 리더십을 진작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화자의 생각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따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자는 "나누고 정복하라"는 전략을 쓴다. 여성이 나뉘면 함께 일할 수 없고 그러면 여성을 통제하고 이용하기가 쉽다. 여기에는 사실 여성의 협동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 있다.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한국 속담이 거꾸로 진실을 드러내듯이 말이다. 에스더서의 여성 등장인물은 고립된 섬처럼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다. 한 번도 서로를 대면하지도 않고 같은 장면에 함께 등장하는 적이 없다. 이야기 구성은 이 여성들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게 만든다. 그들은 서로에게 동지가 아니라 적이다. 여성이 여성에 대한 미움을 진작시키는 듯하다.

www.kci.go.kr

특히 와스디와 세레스는 화자의 편리한 문학적 도구로 기능한다.

학자들이 에스더와 와스디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화자의 방식을 지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성은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 거룩한 어머니와 성매매 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전략은 한국의 교회 여성을 에스더들과 와스디들로 나누었다. 교회에서 둘 중 누가 잘 생존하는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교회 여성이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놀랄 일이 아니다. 여성은 소수만 결정을 내리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다. 두 여자가 성서 해석 속에서 나뉘어져 있는 한, 현실 속에서도 교회 여성의 분리가 지속될 것이다. 에스더나 와스디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해석조차 두 여성을 따로 해석하는 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를 진작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스더서의 화자가 조각난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둘째 전략은 여성 지도자는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심는 것이다. 세 명의 여자는 모두 누군가의 아내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남편을 배신한다.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에스더는 왕명 없이는 왕 앞에 나와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고 왕을 조종하였다. 세레스는 남편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조언을 주었고, 용기를 북돋기는커녕 몰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셋째로 화자는 여성 리더들이 보조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남자들의 명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때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와스디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와스디와 연관된 이야기가 그 점을 보여준다. 사실 와스디를 등장시켜서 폐위시키고 불명예스레 다루지 않고서도 소수민족 고아에다가 아마 별 교육도 받지 못한 미미한 배경의 에스더를 도입하여 제국의 왕비가 되었다고만 묘사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와스디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여자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겪을 것이다. 물론 세레스는 열외이다. 에스더의 운명을 지지하며 순진하게 본문을 읽

www.kci.go.kr

는 독자들에게는 악역을 맡은 하만의 아내는 언급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순진한 독자들은 에스더서를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읽었고 한국의 많은 설교자들은 여전히 이런 배경에서 설교한다. 이런 종류의 해석이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에게 와스디와 같은 교회 여성을 통제하는 기반과 힘을 제공한다.

화자가 여성의 리더십을 보조적으로 다룬 것은 와스디와 에스더와 세레스의 지위 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들은 단지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저절로 리더의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십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적이지 않다. 결국 이들은 아내와 여자로서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넷째로, 화자에 의하면 여성의 리더십은 남자의 유익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성적인 매력, 지혜, 정치적인 기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 희생 등 여성 리더들이 가진 좋은 리더십이 무엇이든지 남성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와스디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을 남들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게 한 것이고 그래서 남편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스더는 보수적인 설교자들의 극찬을 받는데 그 이유는 에스더가 아내로서 순종적이었고 남자의 명예에 유익을 주었고 남자의 이익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했고 자신보다 남자를 높이 둘만큼 겸손했기 때문이었다. 세레스는 남편의 유익에 봉사한 듯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적에게 유리한 말을 했다. 화자에게는 딱 이만큼의 이용 가치가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독자는 세레스가 에스더서에 존재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에스더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딸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며 자라는 한국에서 더욱 강화된다. 문화적인 편견이 한국의 주석서와 설교에 보태진다. 우리 반 여학생의 이야기이다. 남편도 신학생인데 아내가 더 공부를 잘했다. 여학생은 그 학기에 성적이 좋아서 성

www.kci.go.kr

적장학금을 받았다. 그 사실을 알고서 시어머니가 그 여학생에게 말했다. 남편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는 안된다고. 학생 부부에게서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바가 있다. 이 시어머니는 에스더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한국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화자가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제시했다고 본다. 문제는 보수적인 설교자들이 단순히 화자의 구성에 따라 이 이데올로기를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 여성에게는 문제시되는 복잡한 유산이 아닐 수 없다.

와스디, 에스더, 세레스는 적어도 우리의 해석 속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와스디들은 교회를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주는 목사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교회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에서 적어도 30%의 자리를 요구한다. 그들은 종종 배척당하고 교회에서 자유로운 발언에 어려움을 느끼며 적합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교회 쇼핑'을 한다. 에스더들은 수많은 기금마련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각종 물건을 팔아 모은 선교비를 남성 지도자들이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넘겨주는 교회 여성들이다. 에스더들은 또한 자신의 집을 사기도 전에 교회 건물을 짓는데 희생적으로 헌금을 하는 교회 여성들이다. 세레스들은 에스더들의 또 다른 얼굴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만 그대로 자기표현을 하지 못한다. 와스디와 에스더 및 세레스, 이 두 종류의 교회 여성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한다. 와스디들은 에스더들과 세레스들을 낮추어 보고 그들을 집의 부엌에서 교회의 부엌으로 뛰어다니는 교회의 하녀라고 부른다. 에스더들과 세레스들은 와스디들을 여성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나운 싸움닭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피하려고 한다. 에스더서의 여성 등장인물들이 화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 여성은 새로운 화자인 교회의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고 길들여져 왔다. 에스더나 세레스와 같은 교회여성과 와스디와 같은 교회 여성은 하나가 되고 협동

www.kci.go.kr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화자의 관점을 비평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여성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화자의 관점도 비평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여성 인물의 통합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을 에스더서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와스디와 에스더는 다름 아닌 한 사람이다. 둘을 하나라고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수 있지만 화자가 그랬듯이 이 둘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이다. 학자들은 에스더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왕 앞에 나타나는 장면에서 와스디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관찰한 바 있다.[29] 왕은 말을 듣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녀를 제거했는데 결국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는 또 다른 아내를 만난 것이다.[30] 왕은 (그리고 화자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기주장이 강한 유형의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31] 세레스가 지혜롭고 강하게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를 내린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는 그 자체의 근간을 해체한다. 에스더서가 스스로를 해체하는 책이라고 보는 것은 고무적이다. 화자가 여성 리더들을 얼마나 열심히 통제하고 억누르려고 하든지 그들은 계속 되살아나고 다시 부상한다. 해체는 또한 와스디와 에스더, 두 여자의 이름을 한국어로 읽을 때도 벌어진다. 와스디와 에스더는 한국어로 세 음절이고 같은 세 개의 자음이 들어 있다. 간혹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섞어서 와스더와 에스디라고 발음한다.

와스디와 세레스의 종국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와스디는 폐위가 되기는 하지만 사형이라든가 죽었다는 말은 없다. 하만의 죽음은 분명히 밝혀진 반면, 세레스의 종말에 대해서는

29) 데이(Day)는 와스디의 선택과 분리해서는 에스더의 선택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sther, 30.
30) C. A. Moore, Esther, 9.
31) Renita Weems, Just a Sister Away (San Diego: Lura Media, 1988), 99.

www.kci.go.kr

전혀 언급이 없다. 이들은 사라지기는 하나 결코 죽지는 않는다. 와스디는 에스더를 통해 다시 부상한다. 에스더의 지혜는 현자와 같은 세레스를 상기시킨다. 에스더의 리더십은 두뇌를 제공하는 세레스의 지혜와 선택하고 행동하는 와스디의 용기를 결합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 성서 여성들의 통합만이 아니라 교회의 와스디들과 에스더들의 통합도 벌어진다. 와스디이면서 동시에 에스더일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여기 있다. 감리교 여선교회의 10개 연회 중 다른 임원들과 대조되는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한 임원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나는 다가오는 연회 리더십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그 연회 임원들과 만나 한 교회에서 회의를 했다. 연회의 다른 행사가 그 교회에서 열려서 거기로 오는 김에 같은 장소에서 덧붙여서 준비 회의를 한 것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 일행은 로비에서 연회의 감독을 만났고 지나가면서 짧은 인사성 대화를 나누었다. 그 짧은 만남에서 몇 가지 놀라운 관찰을 했다. 먼저 감독님이 임원들에게 말했다.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그간 A 국가와 선교를 했는데 이제 선교비를 다 보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부터 B 국가를 여러분의 다음 선교국으로 하면 어떨지요?" (나는 생각했다. '어째서 감독이 여성들이 선교비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간섭하고 지시하는 걸까?') 둘째로, 여자들은 미소를 지으며 적극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감독님. 그렇게 할게요." (나는 생각했다. '어째서 이 임원들은 공식적인 임원회에서 토론하지도 않고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주는 걸까?') 셋째로, 그 감독이 떠나자마자 임원들은 큰 목소리로 흥분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무언데 감히 우리더러 선교비를 어디에 쓰라고 지시하는 거야?" "제 정신이 아닌 거야!" "하튼 마초라니까!" (나는 생각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째서 조금 전에는 감독에게 다른 대답을 한 것일까?') 넷째로, 몇 달 후에 나는 이 임원들이 그 감독이 요청한대로 B 국가에 천만원을 보냈다고 들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www.kci.go.kr

이것이 바로 교회 여성 리더들의 생존 전략이다. 나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 교회 여성들은 와스디처럼 말하지만 (성차별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적이고 특히 뒤에서 그렇게 하지만), 행동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그들은 에스더처럼 보이지만 (미소를 짓고, '예'라고 대답하고 교회에서 모든 '여성적인' 일을 하고 헌신적이지만), 속에는 와스디가 들어 있다. 그리고 세레스처럼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말을 한다. 현재로서는 에스더들, 세레스들이 지배적이다. 에스더와 세레스 속의 와스디는 자신이 오래 갈아온 손톱을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와스디들은 자신 안의 다른 자매들과 화해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5. 나가는 말

우리는 에스더서의 화자가 여성 리더십을 제한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다룬 것을 보았다. 곧 여성 지도자들은 신뢰할 수 없고 보조적이고 남성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남성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설교들과 설교자를 위한 주석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서 와스디와 에스더에 관한 가장 흔한 해석을 살펴보았다. 한국 설교자들이 가르친 여성 리더십은 문화적 편견과 보수적인 논조로 더욱 제한되고 왜곡되어 있다. 세레스의 리더십은 이들에게 아예 고려 대상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란 교회 여성 사이의 분열이다. 교회의 딸들은 교회 여성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들, 곧 에스더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와스디들처럼 교회를 그만 두겠다고 선택하기 일쑤이다. 교회 여성은 때로 세레스처럼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자신의 이익에 반해서 말한다. 그러나 와스디들과 에스더들은 하나이고 교회 여성은 그들 안에 이 둘을 갖고 있다. 와스디들과 에스더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다음 세대 딸들이 어머니 세대의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게 해 줄 것이다. 세레스들은 자신의 이익에 상응하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www.kci.go.kr

교회는 21세기에 건강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여성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6. 참고 문헌

강병도 편,「호크마 종합주석 3」, (기독지혜사, 1997).

김서택,「민족을 구한 여성 에스더」, (기독교문사, 2006).「그 말씀」, 두란노 (2007/2)에서 인용.

제자원 편,「그랜드 종합주석 7」, (성서아카데미, 1999).

라페이, 알리스,「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장춘식 역), (대한기독교서회, 1998), 213-6. 원제는 Alice Laffey,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 Feminist Perspectiv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8)

이경숙,「구약성서의 여성들」(대한기독교서회, 1998).

Anderson, Bernhard W., "Introduction and Exegesis to Esther," G. A. Buttrick, et al.(ed), *The Interpreter's Bible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54), 821-74.

Berlin, Adele, *Esther* (The JPS Bible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1).

Bronner, Leila Leah, "Reclaiming Esther: From Sex Object to Sage," *Jewish Bible Quarterly* 26:1 (1998), 3-10.

Day, Linda M., *Esther*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Gendler, Mary, "The Restoration of Vashti," E. Koltun(ed), *The Jewish Woman: New Perspectives* (New York: Schocken Books, 1976), 241-7.

Jones, Bruce William, "Two Misconceptions about the Book of

www.kci.go.kr

Esther," C. A. Moore(ed), *Studies in the Book of Esther* (KTAV Publishing, 1982), 437-47.

Lerner, Berel Dov, "No Happy Ending for Esther," *Jewish Bible Quarterly* 29:1 (2001), 3-11.

Lichtenberger, A. C., "Exposition to Esther," G. A. Buttrick et al.(ed), *The Interpreter's Bible III* (Nashville: Abingdon Press, 1974), 841-47.

Moore, Carey A., *Esther*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1).

_____,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Garden City, NY: Doubleday, 1977).

Paton, Lewis Bay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Esth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 Son, 1908).

Rosenblatt, Naomi Harris, "Portraits In Heroism: Esther and Samson," *Bible Review* 15:1 (1999), 20-25, 47.

Stanton, Elizabeth Cady and Lucinda B. Chandler, "Comments on the Book of Esther," E. C. Stanton(ed), *The Woman's Bible* (New York: European Publishing Company, 1898). (Repr. Seattle: Coalition Task Force on Women and Religion, 1974), 84-92.

Talmon, S., "'Wisdom' in the Book of Esther," *Vetus Testamentum* 13 (1963), 437-53.

Weems, Renita, *Just a Sister Away* (San Diego: LuraMedia, 1988).

White, Sidnie Ann, "Esther: A Feminine Model for Jewish Diaspora," P. L. Day(ed), *Gennder and Difference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61-77.

Zeitlin. S., "The Books of Esther and Judith: A Parallel," M. S. Enslin(ed), *The Book of Judith* (Leiden: Brill, 1972), 1-37.

http://blog.joins.com/yiyoyong/

www.kci.go.kr

http://blog.naver.com/goldnature
http://www.brethrenhouse.or.kr/jamee/ja_01.htm
www.gnbtv/bard/boarddetail.html
http://mission.bz/976
http://sdskc.co.kr/zbxe/board_9/2516/page/15
https://sisa-news.com/read.php3?no=18778&read_temp=20070419&section=24

www.kci.go.kr

검색어

에스더
와스디
세레스
여성리더십
한국교회 여성리더십

Vashti, Esther, and Zeresh: Women's Leadership in the Book of Esther and Its Complicated Legacy

Yani Yoo, Ph.D.
Lecture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essay attempts to evaluate women's leadership presented by the narrator of the Book of Esther. The narrator presents distorted images of women's leadership through the description of Vashti, Esther and Zeresh. Vashti is a woman leader who is independent and has high self-esteem. But she is an example of a lousy woman who does not support her husband and makes him look bad in public. This kind of woman deserves punishment and women readers are not to emulate her. Esther is helpful to men and gives everything good to men, although she has to risk her safety. She is an ideal woman leader to the narrator. Zeresh is also helpful to men. She offers counsel to her husband when asked. But she speaks against her own interests.

The readers have been divided in regard to interpreting the biblical women.

www.kci.go.kr

Some feminist readers praise Vashti for her independence and criticize Esther for working for men in their terms. Others give credit to Esther for using what is available to her with wisdom and courage to meet her ends despite the limits of the times. Most scholars do not even deal with Zeresh. We see Zeresh as the brain behind her husband's political activities.

All these women are separated from one another and never talk to one another. Each is like an island drifting alone in men's sea. The narrator makes the reader compare and contrast the women characters and take a side. Focusing on a woman character or comparison or contrast among them only results in separating them even more. Women readers will also be divided into two. Seeing Vashti as a better leader than Esther risks the same danger.

The women's leadership described by the narrator misleads the readers. It leaves complicated heritage to Korean church women. Most Korean preachers not only follow the narrator, but intensify and magnify it in the patriarchal context of the Korean church. Their understanding of biblical women's leadership is in direct proportion to modern women's leadership status in the church. In fact, among women in the church there is separation and conflict among Vashitis and Esthers.

Thus, sensitive readers can see the need for the women character in the Book Esther and church women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one respectively. We see Vashti in Esther when the latter breaks a royal rule. We see Zeresh in Esther when the latter acts like a sage. Church women also have all these women in them, being Vashti rebellious against the opaque church management, being Esther obedient to the end, and being Zeresh speaking against her interests. A healthy incorporation of the three will strengthen the church.

www.kci.go.kr

Key words

Esther

Vashti

Zeresh

Women's leadership

Korean church women's leadership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제 확정일: 2013년 8월 05일

www.kci.go.kr